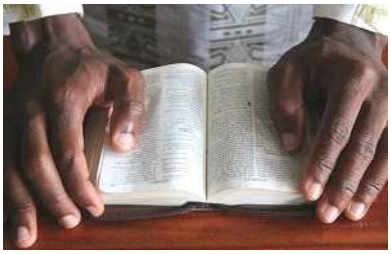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수단, 전쟁 중에도 성경 번역 계속돼…성경 읽고 회심자 늘어



내전이 진행 중인 수단에서 성경 번역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는 한편, 성경을 읽는 이들이 회심하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뉴스가 최근 전했다.

수단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지난 12일 수단 군대와 반군 단체 RSF 간의 충돌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유엔에 따르면 수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난민 인구의 절반은 어린이다.

수단의 두 분쟁 정파는 유엔에 3월 1일까지 수단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수단 국민들의 중요한 생명줄을 제거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다. 기독교 선교 비영리 단체 언폴딩워드(unfolding Word) 파트너인 존은 “수단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안전을 찾고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안전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30년간의 가혹한 이슬람 통치로 인해 수단 대부분의 종족 공동체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언폴딩워드는 교회 중심의 성경 번역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있다.

존은 “그들(번역가들)이 번역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온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 이야기를 간결하게 풀어 쓴 자료인 ‘오픈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단의 교회 개척자들은 난민 캠프에서 소수 언어로 된 오픈 바이블 스토리를 나누고 있으며,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존은 “이 번역가 중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부족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정말 기적이다! 4명의 미전도종족 난민이 새신자가 되어 우리 단체의 훈련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존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수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하나님, 수개월째 내전으로 고통당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수단인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복음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붙드사 수단의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나게 해주시고, 수단에 속히 내전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예멘 반군 후티, 美·英 국적자 한 달 내 '강제 출국' 명령

예멘 반군 후티가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30일 이내 미국·영국 국적자에게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후티 반군 측은 외무부 명의로 유엔의 예멘 인도주의 조정관에게 이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또 서한에는 예멘 내 활동을 위해 미국인과 영국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명령도 포함됐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과의 10년 가까운 전쟁에서 예멘 수도 사나 등 북부를 장악해 왔다. 작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자 작년 11월부터 유럽을 잇는 교역로인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다국적군을 규합해 지난 12일부터 영국군과 함께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폭격 중이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욥기 25:2)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동맹국들로 확전되어 예멘 반군과 미국·영국의 폭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분노와 증오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고조되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화평을 베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쟁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중동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일하여 주소서.

▲ 멕시코, 6년 연속으로 살인 사건 3만 건 이상…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2023년

멕시코는 2023년에 6년 연속으로 3만 건 이상의 살인 사건을 기록해 최근 멕시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시기를 기록했다고 미주 언론 세마포가 18일 보도했다. 이러한 폭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2024년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됐지만, 멕시코 유권자들은 두 유력 대선 후보가 갱단 폭력 단속을 위한 강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은 폭력 사태의 증가가 멕시코의 민주적 규범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며, 이미 군사화가 심해진 멕시코에서 조만간 무기를 내려놓을 것 같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은 마약 밀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암살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마약 카르텔에 맞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루이즈 마시유 상원의원은 최근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선거 유세 중 살해된 이후, "민주주의를 범죄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로마서 3:23-24)

하나님, 매년 3만 건 이상의 살인 범죄가 발생하며 폭력으로 얼룩져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멕시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참담함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소서. 정치인의 약속이나 권력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 죄 됨을 값없이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멕시코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육체의 탐심에 종노릇 하여 타인의 생명까지 해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권세로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러, 우크라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집중 폭격…“최소 18명 사망”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주요 인프라가 파손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남동부 파블로흐라드 등에 미사일 등 폭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례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18명이 사망했으며, 13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가 139채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에서는 여전히 건물 잔해를 헤치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에 따르면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아파트와 유치원 등 건물이 파괴되면서 어린이도 다수 다쳤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41기 중 2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격추는 대부분 키이우 상공에서 이뤄졌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는 무력에 의해서만 이 테러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 약점을 보인다면 러시아 미사일은 내일 서방 도시 상공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내 미사일, 폭발물, 탄약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야고보서 1:15,21)

하나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소식에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이 전쟁의 종식과 두 나라 국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보고 들으면서도 욕심과 넘치는 악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의 비참함을 비추시고 책망하사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러시아 정부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케 하사 모든 전쟁과 고통이 멈추고 두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심기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중국 윈난성, 산사태로 25명 사망…위구르 7.1 강진으로 6명 부상

22일 중국 윈난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으며, 다음 날인 23일에는 위구르 자치구에서 7.1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22일 중국 남서부 윈난성 전슝현 탕팡진 량수이촌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다. 중국 당국은 구조대 1,000여 명과 장비 15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23일 새벽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서부 아커쑤지구 우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해 주민 6명이 다치고, 주택 125채 붕괴·파손, 양 축사 6채가 무너졌다.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이 일대 규모 5.0-5.3의 여진 4차례 포함, 규모 3.0 이상 여진이 총 70차례 발생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이사야 26:16-17)

하나님, 지진과 산사태로 터가 흔들리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을 당한 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도움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추운 날씨에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마련되게 하시며,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당국에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 땅 주민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모든 복구와 회복의 과정 중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 VOM, 인도 종교자유 제한 국가로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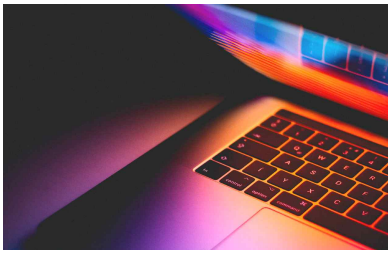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단체 '순교자의소리'(VOM)가 연례 '세계 기도 안내서'에서 인도를 종교적 자유가 제한된 국가로 선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VOM의 '제한 국가' 지정은 주로 기독교 예배와 전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연방법을 가진 국가들에 한해 적용된다. VOM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당선되고 2019년 재선 된 이후,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헌법상 종교적 자유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반대와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모디 정부가 순수한 힌두교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념인 힌두트바(Hindutva)를 조장했고, 이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12개의 인도 주에서 강제 개종 금지법을 시행해 기독교 전도자에게 중대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VOM은 설명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에베소서 6:18)

하나님, 순교자의 소리가 열방의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는 인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직 권력과 탐심을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모디 정부의 완악함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극심한 박해와 공포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며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음란물 중독 ‘심각’…영국 기독교단체 “정치적 조치 시급”



많은 젊은이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후, 한 기독교 자선단체가 긴급한 정치적 조치를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정신 건강 및 중독 클리닉인 ‘파라켈수스 리커버리’(Paracelsus Recovery)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음란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15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클리닉의 얀 거버(Jan Gerber) 대표는 “젊은이의 약 3분의 2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공식 수치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2명 중 1명은 음란물 소비로 인해 중독 진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제를 겪고 있고, 여성은 4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그 수치는 60%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국의 기독교 자선단체 ‘케어’(CARE)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어의 정책 책임자인 루이즈 데이비스(Louise Davies)는 “이 보고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음란물 소비와 중독의 놀라운 범위를 보여준다”며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은 부모와 아동 전문가, 인권 단체 등 많은 사람에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폭력적인 음란물과 성범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엄청난 공포’는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영국 정부는 법의 공백을 재검토해야 한다. 변화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음란물 업계의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도록 이끄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론 조사 기관 ‘사반타’(Savanta)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 10명 중 8명이 음란물 웹사이트 내 연령 확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로새서 3:5,16)

하나님, 안목과 육체의 정욕에 종노릇 하여 음란물에 중독된 다음세대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단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죄 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복음과 기도로 싸우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죄에 종노릇 하던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려질 때, 땅의 지체를 죽음으로 넘기고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거룩함으로 주를 찬양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에콰도르, 1,000억 원어치 마약 적발

남미 에콰도르 중서부 로스리오스주 빈세스 지역에서 싯가 1,000억 원이 넘는 약 22t의 코카인이 한꺼번에 적발됐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가 비상사태 속 강력한 마약 밀매·폭력단체 척결에 나선 에콰도르군과 경찰은 "150여 명의 군 장병이 바나나 농장 아래 교묘하게 건설된 지하 창고에서 통제 대상 마약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마약이 담긴 일부 꾸러미에는 유럽 항공사 직인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과 함께 갱단 무력화 작전을 수행 중인 에콰도르 경찰은 또 지난 7일 악명 높은 카르텔 수괴인 '피토' 아돌포 마시아스의 탈옥 이후 2주간 일련의 작전을 통해 2,700여 명의 갱단원과 폭력배 등을 구금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9,11-12)

하나님, 마약과 폭력 등 범죄와의 전쟁을 오랜 기간 치르고 있는 에콰도르가 주의 긍휼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악이 끊어지고 의인이 서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수 있는 마약을 유통하며 탐심과 쾌락을 채우는 범죄 조직에게 죄에 대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고로 들려주십시오. 또한, 비상사태 속에 범죄를 소탕하는 당국이 존재적 죄 됨의 실상을 가까이에서 깨닫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여 주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소서.

▲ 미국 장로교, 정부와 의회에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 요청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성전환 수술과 성전환 미성년자의 사춘기 개입을 장려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2일 CP가 전했다. PCA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생물학적 성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자연스러운 사춘기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PCA의 서한은 아동에 대한 성경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며, 정부 지도자들에게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예레미야애가 2:19)

하나님, 미국장로교회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막으려 정부에 요청한 서한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창조질서를 떠나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의 다음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불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 세대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같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소서. 미국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게 하사 주의 능력으로 지켜낸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